

제4권 (4단원 :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

(제19과) 순교자 스테반

- **본문** : 사도행전 6:8-15, 7:54-60
- **요절** :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행 6:15)
- **찬송** : 377장(새찬송가 449장), 383장(새찬송가 336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사도들만으로는 사역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와 봉사와 같은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맡아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테반도 그렇게 세움받은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테반의 행적을 보면, 그의 성숙한 신앙 인격과 복음을 위한 헌신과 열정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가 초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예를 얻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상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반의 신앙 생활을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스테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테반에 대한 평가는 그가 성령 충만한 성도였음을 증거합니다. 우선, 그는 초대 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하나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6장 8절 이하를 보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고, 헬라파 유대인의 각 회당에서 변론할 때는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행 7:55). 다시 말하면, 스테반이 그토록 장렬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일은 인간의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下)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지만, 그 밤에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스테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스테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겹 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7)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스테반 집사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공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했던 그의 설교를 보십시오(행 7:1~53).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약의 역사를 거침없이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그의 설교를 보면, 그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그의 변증에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은 마음이 찢려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 거의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이 너무나 타락한 까닭에 도도히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성도들이 과거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말세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연약한 신자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마 24:24).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요동치 않고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상고하여 스테반 집사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스테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자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은 양심이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밖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과연,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못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스테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여순반란 당시 그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죄로 사형이 선고된 좌익 학생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양자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테반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물론, 불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테반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자기 생명을 바쳐 동족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이 악한 세대에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테반처럼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